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9인의 각오

“대선서 정권교체 이뤄 광주·전남 자존심 살리겠다”

광주일보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지난 4·11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19명의 당선자들에게 19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었다. 이들은 올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내고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아 4년간 지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민생·화해·통합의 국회로”



▲박주선(무소속, 광주 동구)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참된 언론으로 자리할길 기원한다. 제19대 국회를 일자리 국회, 민생 국회, 화해와 통합의 국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연말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 특히 세 번째 민주정부를 구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19대 국회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여성계 입장 반영할 것”



▲박혜재(민주통합당, 광주 서구갑) 하나씩 배운다는 자세로 시작하겠다. 지역 현안이나 시민들의 바람,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장 등 세로 악하거나 쟁거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 잘 뽑았다’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시민들과 지역 여성계의 입장을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평등·평화·생명 세상 밀거름”



▲오병운(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평등·평화·생명 세상을 위한 큰 거름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존 정치에서 벗어난 바른 정치,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복지 재원 조달 재정개혁 추진”



▲장병원(민주통합당, 광주 남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남구를 명실상부한 첨단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문화교육특구에 걸맞는 문화교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특히 재정전문가로서 파산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악화한 국가재정 건전성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생 안정에 99% 역량 집중”



▲강기정(민주통합당, 광주 북구갑) 초심으로 돌아가 더 뛰겠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정권교체와 지역발전의 소임을 완수하겠다. 특히 99% 시민의 생활을 돌보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광주경제를 살찌우고 키우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 유권자들이 찍어준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

“전국 인맥 활용 예산 확보 온 힘”



▲임내현(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99% 시민이 활짝 웃는 특권 없는 세상, 희망찬 복구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듯이 지역민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전국 인맥을 활용해 복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중앙정치에서도 복구의 위상을 높이겠다. 초선 의원이기 하지만, 3선, 4선 중진급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는 칭찬을 듣는 의원이 되겠다.

“경제 민주화·보편적 복지 실현”



▲김동철(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갑)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희생·헌신하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의정활동의 좌표로 삼겠다. 특히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정권을 되찾는데 분골쇄신하겠다. 공약을 꼼꼼히 실천하되, 광산을 넘어 광주를 아우르고,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국가를 생각하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

“공약 완수로 희망정치 펼칠 것”



▲이용섭(민주통합당, 광주 광산을) 정권교체 없이 나라발전은 물론 광주전남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해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지역 공약들도 차질 없이 완수에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한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끈은 정치, 민생정치, 희망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정권교체 이뤄 민주주의 완성”



▲박지원(민주통합당, 목포)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 온 광주일보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올해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해 광주·전남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 특히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던 영광을 꼭 되찾겠다. 19대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들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수신항 대체부두 조기 착공”



▲김성민(민주통합당, 여수 갑) 시민들이 부여해준 4선의 계급장은 권위의 표시가 아닌 그만큼 책임을 부여한 임명장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그간 선거운동기간 중 밝힌 공약 이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 사후 활용과 여수신항 대체부두의 조기착공 등을 이뤄내겠다. 또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적 과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中企·자영업자 생존방안 마련”



▲주승운(민주통합당, 여수 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민주통합당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입안했던 무상급식·보육·의료에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3+1 정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방안과 함께 낙후된 광주·전남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공약, 실천과 성공으로 말하겠다”



▲김선동(통합진보당, 순천·곡성)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의 뜻을 절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실천과 성공으로 보답하겠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잘 사는 문화도시 순천, 농업과 관광이 살아나는 장수문화 산업도시 곡성을 만들겠다. 아권연대 더욱 튼튼하게 해 정권교체와 서민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지역경제 회복 농가 소득 증대”



▲배기운(민주통합당, 나주·화순) 이명박 정부 4년여간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서민경제가 파탄 났고,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실패한 현 정부의 정책을 재진단해 회복하는 한편, 비대해진 재벌을 개혁하고 복지로 먹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매진하겠다. 또 시·군민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경제 회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우은근(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의 지난 4년간 국민의 삶이 많이 피해를 봤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물가대책과 선별적·보편적 복지를 조화시킨 창조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섬진강과 지리산·백운산을 이용한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와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민생 안정·지역 경제 부흥”



▲이낙연(민주통합당, 담양·함평·영광·정성)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축하한다. 지역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중앙과 지방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겠다. 19대 국회에선 담양·함평·영광·정성으로 지역구가 넓어진 만큼,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양극화 해소 제도 개혁 앞장”



▲김승남(민주통합당, 고흥·보성) 양극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농어촌에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제도개혁에 앞장서겠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책을 제도화하겠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를 없애는 ‘민생 국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변하는 ‘혁신의 국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국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

“농가 소득증대 지원 특별법 제정”



▲황승홍(민주통합당, 장흥·강진·영암) 대한민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농정입법’ 시대를 활짝 열겠다. 농민의 소득이 늘어 풍요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입법지원 활동에 나서겠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증대 지원특별법’을 가장 먼저 제정하고, 1년 내 바쁜 ‘농한기 없는’ 농촌을 만들겠다. 오만한 중앙정치를 쇠신하고, 국회를 ‘서비스기관’으로 만들겠다.

“재벌 특혜·FTA 폐해 막을 것”



▲김계록(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정치와 신뢰의 정치, 소통과 화합의 정치로 희망이 되겠다. 이번 선거는 농어촌을 파탄하고 민생을 위협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어업인과 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재벌 특혜와 무분별한 FTA를 막아내겠다. 무너진 농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

“소외지역 개선...변화의 일꾼 될 것”



▲이윤석(민주통합당, 무안·신안) 이번 총선은 무안·군민 모두의 승리다. 저를 선택한 것은 소외받은 지역에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지역의 일꾼을 원했기 때문이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또 지역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히 맞서겠다. 이번 선거기간 중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선사한 클래식 명장의

“은 세상에서 실 곳을 찾았으나, 음악이 흐르는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은 없었다.”

클래식이 필요한순간들

홍승찬 지음 | 268쪽 | 13,000원 | 책임은수요일

저자 홍승찬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음악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 동대학원 서양음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예술경영 1세대 교수로서 대중들이 클래식에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SEPI CEO 인문학 '뮤직 인사이트', '커피콘서트' 등 여러 강연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에 음악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밖에 국립합창단 운영위원, 세계무용 콩쿠르 집행위원,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문화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KBS 교향악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